

韓藥文化를 꽃 피우자

會長 姜 容 鉉



政治 經濟的으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 傳統 韓醫藥을 繼承 發展시키는 한편 全國의 農漁村, 奧·僻地에서 國民의 健康增進을 爲하여 獻身하고 계시는 會員 여러분의 勞苦에 眞心으로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韓藥人은 過去에 經驗하지 못했던 IMF寒波의 國家的 經濟危機 속에서도 뼈를 꺾는 苦痛을 堪耐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 은국민과 함께 한길로 나선 結果 이제는 우리나라 經濟나 國力이 漸次 回復局面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敬愛하는 會員여러분!

韓方은 우리 祖上들이 수많은 臨床過程을 通하여 研究 發展시켜온 學問이며 지난 數千年동안 우리 民族의 健康과 生命을 지켜온 우리 固有의 醫術인 것입니다. 이러한 韓方醫療도 世界化時代에 발맞추어 널리 海外에 進出, 人類의 健康增進을 爲하여 이바지 할 時期입니다. 그러나 우리 韓方이 世界醫療市場에서 그만큼 位相을 定立하고 그 優秀性을 認定 받기 爲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峻嶺이 수없이 많습니다.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

오랜 歲月동안 韓醫藥을 갈고 닦아 民族의 生命과 健康을 爲해 온 우리 先輩 韓藥人들 은 부단한 學問연구를 通하여 더욱 燦爛한 韓藥文化를 꽃 피웠던 것입니다. 우리 韓藥人들 은 이러한 先賢들의 知慧와 崇高한 뜻을 이어받아 지난 97年 4月 이 「大韓韓藥」을 創刊했으며 98年 3月 2號誌를 出刊한데 이어 今年 5月에는 醫療經驗을 集成한 「東醫驗方新纂」을 發刊하였고 이어 이번에 3號誌를 내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正統 韓藥人이라는 自矜心과 使命感으로 持續的인 學術事業을 通해 所重한 名方을 集成함으로써 우리 의 力量을 蓄積하고 아울러 後學들의 韓醫藥을 研究 發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3號誌 出刊을 爲해 刻苦의 努力을 기울여 주신 李麟星學術委員長님 以下 學術委員長님과 精誠을 다하여 玉稿를 마련하여 주신 會員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며 會員 여러분의 寶業이 날로 繁昌하기를 祈願합니다.

1999 8 15